



신라 중고기 왕실계보와 왕위계승 연구 특히, 파른본 을 통하여

A Study on Royal Genealogy and Succession to the Throne in Silla during 6-7th Centuries

저자 (Authors)	김창겸 Kim, Chang-kyum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30), 2014.4, 65-118(54 pages) SILLASAHAKPO (30) , 2014.4, 65-118(54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4358
APA Style	김창겸 (2014). 신라 중고기 왕실계보와 왕위계승 연구. 신라사학보(30), 65-11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4 14:5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중고기 왕실계보와 왕위계승 연구*

- 특히, 파른본 《三國遺事》 王曆을 통하여 -

김 창 검**

I. 머리말	Ⅲ. 중고기의 왕위계승 과정과 성격
II.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과 중고기 왕실계보의 복원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새로 공개된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을 검토하여 신라 중고기 왕실의 계보를 검토하고, 이 시기 왕위계승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파른본 왕력의 신라 중고기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증마립간의 妃는 迎帝夫人, 법흥왕의 비는 巴刀夫人, 진흥왕의 어머니는 只召夫人이고, 진지왕의 어머니이며 진흥왕의 비인 息途夫人은 牟梁里 박씨이고 그녀의 아버지는 英失 角干임을 알았다, 그리고 진덕여왕의 아버지는 國眞安葛文王이며, 어머니 阿尼夫人의 아버지는 奴角干인데 滿天安葛文王으로 추봉되었음과, 또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사업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13-C13).

**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주요 논저 : <9세기 신라인의 출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신라사학보》 28, 2013 ; <신라 승려 심지 연구>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4, 2013 ; <신라의 동북방 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출항지> 《사학연구》 101, 2011 등 다수.

태종무열왕의 아버지는 龍春 角干인데 추봉 명칭이 文興葛文王이고, 어머니 天明夫人은 文眞太后임을 확인하였다.

또 신라 중고기의 왕위계승과정을 각 왕별로 살펴본 결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父系로 모두 지증왕의 후손들이라 ‘智證王系’이며, 좀더 작은 가계로 구분하면 진흥왕의 후손들이라 ‘眞興王系’라고 하겠다. 母系는 金氏와 朴氏가 거의 반반에 해당한다. 前王의 長男 또는 長女인 경우에는 繼位를 하였지만, 혈연으로 비정상인 경우에는 再從弟와 次子로서 비평화적 계승인 篡奪하였거나, 평화적 계승이었다고 해도 推戴의 절차를 거쳐서 즉위하였다.

한편 중고기 왕은 즉위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대체로 혈연적으로 왕실의 김씨 부계와 김씨 모계의 근친혼, 소수 박씨 모계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인물들이었다. 새로 즉위한 왕들은 김씨만의 근친혼이 아니라 박씨와 혼인하여,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인재등용의 범위를 넓혀 왕권강화를 추구하였다.

결국 신라 중고기의 왕위계승은 지증왕계의 長子繼承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때로는 친족 계승원리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眞平王 이후에는 聖骨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그 결과 두 명의 女王이 연이어 즉위하는 女系繼承의 특수 현상이 있었다.

주제어 : 파룬본, 삼국유사, 왕력, 지증왕계, 왕위계승, 중고기, 신라

I. 머리말

《삼국사기》에서 신라사를 上代(제1대 박혁거세~제28대 진덕여왕), 中代(제29대 태종무열왕~제36대 혜공왕), 下代(제39대 선덕왕~제56대 경순왕)로 3시기로 나눈 것과 달리, 《삼국유사》에서는 上古(제1대 박혁거세~제22대 지증왕), 中古(제23대 법흥왕~제28대 진덕여왕), 下古(제29대 태종무열왕~제56대 경순왕) 3시기로 구분하였

다.1) 《삼국유사》의 구분에서 이른바 중고기는 신라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서의 통치체제를 갖추어 국왕과 귀족세력과의 일정한 정치적 타협과 조화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던 시기로 이해되고 있다.

《삼국유사》의 시기구분에서 중고기는 제23대 법흥왕(재위 514~540)에 시작되었지만, 그 신라국가의 정치적·사회적 기반은 전왕인 제22대 지증왕대(재위 500~514)에 대체로 마련되었다. 우선 왕위계승에 있어서 이후로는 지증왕의 후손들이 王統을 이어갔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牛耕 시작, 殉葬 폐지, 국호 新羅와 중국식 王號 제정, 州郡制度 채택 등 국가체제를 확립하는 조치를 하였다. 또 대외적으로는 南朝의 梁에 사신을 보내어 중국과의 교섭이 다시 열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법흥왕대에는 兵部 등 중요 官府 설치, 上大等 설치와 진골귀족회의 제도화, 佛敎 공인, 律令 반포와 百官 公服을 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가체제를 법제화·조직화하였다. 특히 신라의 독자 年號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24대 진흥왕대에는 가야국을 병합하여 낙동강 유역을 차지하고, 한강 유역을 점령하여 안정적인 대중국 교통로를 확보하였으며, 한편 동해안으로 북상해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제25대 진지왕대에는 백제와 항쟁하면서 중국 南朝와 진흥왕 이래의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또 제26대 진평왕은 位和府·租部·禮部 등 핵심적인 중앙 관부 설치와 內省私臣 등을 설치하여 관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켰다.

이와 같이 비약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어 신라 삼국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중고기는 王位繼承에서도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 중앙집권체제 구축과 함께 지속적으로 왕권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고기 왕실을 불교의 神聖 관념과 더불어 이른바 聖骨 관념으로써 王家를 신

1) 《삼국유사》 권1, 王曆.

성화하였다. 그 결과 중고기는 신라사에서 가장 자주적인 국가의식을 가졌던 시기였고, 이 시기에 재위한 성골 왕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유별했었다.²⁾

그렇지만 신라 중고기의 왕위계승과 관련하여서 종전까지 확인된 바로는 왕실 인물의 이름과 계보에 대하여 자료의 부족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상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왕실 인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금석문 자료가 발견되고, 특히 최근에 이른바 파른본 《삼국유사》의³⁾ 왕력과 기이편이 공개되어 연구에 새로운 계기가 주어졌다고 하겠다.⁴⁾

필자는 이 글에서 파른본 《삼국유사》를 이용하여 신라 중고기 왕실의 계보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이 시기에 있었던 왕위계승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삼국유사》의 시기

2) 김기홍, 《천년의 왕국》, 창작과 비평사, 2000, 103쪽.

3) 파른본이란 명칭은 발굴자인 손보기(1922~2010)의 호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이것은 현재 연세대학교 도서관이 소장되어 있으며, 1책의 목판인쇄물로, 《삼국유사》의 王曆과 紀異 권1, 2로 구성된 1책이다. 전체 52장이며 후대에 改裝한 五針眼裝訂 표지에다가 ‘三國遺事’라는 복사한題籤이 있다. 전체 크기는 31.1×20.0cm이고, 비교적 얇은 백색 닥종이를 재료로 삼았다. 본문을 배접을 했고 벌레가 먹은 곳이 군데군데 있지만 본문에는 훼손이 없다. 서지사항은 四周雙邊. 半匡: 23.9×17.1cm. 有界. 10行 21字(紀異 기준). 註雙行. 版心: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單線. 單弧)라고 한다.

4) 파른본 《삼국유사》에 대한 검토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발표되었다. 김태식, <삼국유사에서의 왕력의 위치와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의 가치> 《신라사학보》 28, 2013 ; 김상현, <삼국유사 현존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동방학지》 162, 2013 ; 남권희, <파른본 삼국유사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162, 2013 ; 하일식, <삼국유사 파른본과 기존 판본의 글자비교> 《동방학지》 162, 2013.

구분에 따르면 신라 중고기는 법흥왕~진덕여왕까지이나,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중고기는 바로 직전의 지증왕 후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혈통상으로 보면 이른바 ‘智證王系’⁵⁾ 왕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의 제목에서 비록 신라 중고기의 왕위계승을 살펴본다고 표방하였으나, 보다 논의와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서, 내용에서는 신라 상고의 마지막 왕에 해당하는 지증왕을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그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의 특이 기사를 검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신라 중고기 왕실 계보를 복원하고 재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이 시기의 왕위계승 과정과 성격을 살펴보겠다.

5) 일찍이 이기동은 신라 중고의 왕실 친족은 기본적으로 지증왕계라는 혈연의식에 의하여 맺어진 집단으로 이해하였으며(이기동, <신라 내물왕계의 혈연의식> 《역사학보》 53·54합집, 1972, 26~36쪽), 이에 더해 이종욱은 신라 상대 왕위계승을 연구하면서 상대를 네시기로 구분하고 ‘제4기 지증왕계왕시대’라고 명명하였다(이종욱, 《신라상대왕위계승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0, 254~263쪽). 그리고 이희관은 ‘지증왕계’(이희관, <신라상대 지증왕계의 왕위계승과 박씨왕비족> 《동아연구》 20, 1990), 김병근도 ‘지증왕계’(김병근, <진평왕의 즉위와 지증왕계 인물들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6, 2009)라고 하였다.

Ⅱ.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과 중고기 왕실계보의 복원

1.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의 특이 기사

우리가 잘 알듯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더불어 한국 고대사, 특히 신라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문헌자료의 하나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삼국유사》는 그 표현이 설화적 성격이 강하고 부분적으로는 서지사항에 좀 모호한 점이 있어 철저한 사료 비판이 요구되는 곳이 더러 있다.

《삼국유사》는 王曆을 필두로 紀異, 興法, 塔像, 義解, 神呪, 感通, 避隱, 孝善의 9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王曆은 《삼국유사》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⁶⁾ 현전하는 판본 어느 것에도 《삼국유사》 전체 목차를 수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왕력을 서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왕력의 성격과 《삼국유사》의 卷 편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왕력은 年表로서 말그대로 어느 왕조의 왕들의 연대기이다. 실제 《삼국유사》 왕력을 보면 중국의 年號를 기축으로 삼아 羅(신라)·麗(고구려)·濟(백제)·洛(가야)과 後百濟·後高(후)麗를 포함한 왕조들의 시조부터 마지막 왕까지 역대 왕을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역대 각 왕에 대해서는 그가 해당 왕조의 몇 번째 재위한 왕으로, 성씨는 무엇이며, 언제 즉위하여 몇 년 동안을 다스렸고, 또 그의妃는 누

6) 왕력은 ‘《삼국유사》 전체를 구동하는 엔진이자 네비게이터’라는 비유도 있다(김태식, 앞의 논문, 2013, 304~308쪽).

구이며, 그리고 先代 가계 - 특히 父母가 누구인지를 두 줄의 細註 혹은 夾註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삼국유사》 왕력의 저자와 관련하여 일찍이 崔南善은 南宋 멸망 이전 시기에 一然이 신라 말에 崔致遠이 지은 《帝王年代曆》을 요약한 것이라고 하였다.⁷⁾ 이 견해는 해방 이후에 통설이 되어 왕력은 일연의 저작으로 이해되고 있다.⁸⁾ 사실상 王曆 第一이 《삼국유사》 9개 편목의 하나라는 점을 전제하면, 왕력이라는 편목도 일연에 의해 편성되었을 것이다.⁹⁾ 한편 《歷代年表》와 《삼국유사》의 관계를 중시하고¹⁰⁾ 一然의 저작임을 인정하면, 왕력은 1278~1289년에 찬술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각 왕의 재위 연수를 비교하면 《역대연표》와 왕력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¹¹⁾ 심지어 왕력의 완성 시기를 《삼국사기》가 편찬된 1145년 이전으로 올려보는 견해도 있다.¹²⁾

그러나 이와 달리 王曆이 원래 독립된 책이었다가 《삼국유사》의 한 부분으로 더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왕력이 다른 편과의 유기성이 약한 점, 일연의 철저한 고증 태도와 달리 착오나 인용 오류가 보이는 점, 그리고 기이편을 첫머리에 신는다는 《삼국유사》의 표현,¹³⁾ 권제1 안에서 ‘왕력’과 ‘기이’편 사이에 版心の 次數가 연계되지 않는 점, 기존 판본에서 왕력과 기이 권제1을 합쳐 권제1로 보면 140쪽이 되어 98쪽에 불과한 기이 권제2와 분량 면에서 심한 불균형을 이루는 점, ‘왕력’의 신라사 시대구분이 기이편에 반영되지

7) 최남선, <삼국유사 해제> 《계명》 18, 계명구락부, 1927, 38~39쪽.

8) 이기백, <삼국유사 왕력편의 검토> 《역사학보》 107, 1985, 4쪽.

9) 김상현, 앞의 논문, 2013.

10) 채상식, 《고려후기 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180쪽.

11) 박미선, <일연의 신라사 시기구분 인식> 《역사와 현실》 70, 2009, 158쪽.

12) 강인구, <신라왕릉의 재검토>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404쪽.

13) 김상현, 앞의 논문, 1985, 3쪽, 13~14쪽.

않은 점을¹⁴⁾ 중시하면 왕력의 찬자 역시 一然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王曆을 부록,¹⁵⁾ 즉 왕력은 《삼국유사》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편찬된 것을 일연이 부록으로 수록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¹⁶⁾ 그리고 최근까지 왕력편 보입설은¹⁷⁾ 학계에서 또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다.¹⁸⁾

하지만 이번에 파른본 《삼국유사》가 공개됨으로써 왕력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야하게 되었다. 이 파른본의 간행 시기에 대해서는 板式의 균질성, 판심 어미의 좁음, 고려 王名에 대한 피휘의 불완전성, 그리고 壬申本에 이용된 고판본 《삼국사기》·《삼국유사》의 마멸도가 동일한 점을 근거로 조선 초기의 重刊本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¹⁹⁾ 사실상 관련 전문연구자들도 현재로서는 파른본은 적어도 初刊本이 아니며²⁰⁾ 鮮初本 정도로 보고 있다.

어쨌든 이 파른본의 왕력을 종래에 연구자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宋錫夏 舊藏 ‘石南本’ 및 ‘壬申本’(규장각본)과 비교해 보면 표기 형태와 서술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부분도 더러 있다.²¹⁾ 여기서 이 글

14) 하정룡, 《삼국유사 사료비판》, 민족사, 2005, 253~256쪽.

15) 村上四男, <三國遺事解說(その一)> 《朝鮮學報》 99·100, 1981.

16) 김상현,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7) 이근직,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 성격과 시기> 《한국사연구》 101, 1998 ; 박미선, 앞의 논문, 2009 ; 박대재, <삼국유사 판본의 몇 가지 문제> 《교감 삼국유사》, 고려대출판부, 2009.

18) 그러나 김상현은 최근 타계하기 직전 종래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김상현, 앞의 논문, 2013, 10쪽).

19) 남권희, 앞의 논문, 2013, 93쪽. 특히 조선 건국 직후의 사서 편찬 흐름을 근거로 《삼국사기》가 중단된 1394년이 파른본 왕력인 간행 시기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도현철, <조선 초기 단군인식과 《삼국유사》 간행> 《동방학지》 162, 2013, 46쪽).

20) 김상현, 앞의 논문, 2013, 16쪽.

의 연구 주제인 신라 중고기의 왕위계승을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왕실 계보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해당 시기의 왕력 부분을 비교한 것을²²⁾ 이용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22 지정마립간조를 보면, 파른본에서는 “一作智哲老”라 하였다. 이와 달리 임신본에서는 “一作智哲名”이라 하여 이름이 智哲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한편 석남본에서는 “一作智哲老”라 하였다. 그러므로 파른본과 석남본은 그 계통을 같이 하는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임신본은 그 판본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판각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짐작해도 되겠다. 이에서 보건대 지정마립간의 이름은 智哲老가 옳으며, 이를 파른본이 방증해 주고 있다고 보겠다.

② 파른본에서는 지증왕의 아버지를 “期寶葛文王”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임신본에서는 “期宝葛文王”이라 하였고, 한편 석남본에서는 “期寶葛文王”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파른본과 석남본은 그 계통을 같이 하는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임신본은 그 판본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판각에서 異體字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또 “儉攬代漢只登許”에서 儉은 檢의 속자이지만, 정식 이체자는 아니다. 파른본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는 檢의 이체자인 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좌변이 亅으로 변형되고 우변은 간략화되면서

21) 《삼국유사》 여러 판본을 대조 비교한 교감본과 역주본으로는 하정룡·이근직 《삼국유사 교감연구》, 신서원, 1997 ;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 이회문화사, 2003 ; 최광식·박대재, 《교감 삼국유사》, 고려대출판부, 2009 등이 대표적이다.

22) 이부오,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의 판본상 위치와 이표기의 서술 맥락>, AKSR2013-C13 결과보고서. 한편 파른본을 제외한 다른 판본간의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대조는 주 21)에 제시한 교감본과 역주본을 참조하기 바란다.

倝로 변형되었을 것이다. 倝은 석남본에서도 동일한데, 임신본에서는 倝로 바뀌었다. 이는 倝이 괴자화된 상태에서 於에 가까운 오자로 바뀐 셈이다.

④ 한편 제23 법흥왕조에서 법흥왕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서명을 파른본에서는 “冊府元龜”라고 표기하였다. 그리고 석남본에서도 “冊府元龜”라고 하였으나, 이와 달리 임신본에는 “明府山龜”라고 되어 있다. 이에서 보건대 “冊府元龜”가 옳으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는 중국의 서책인 冊府元龜인 것이다.²³⁾

⑤ 법흥왕의 이름을 파른본에서는 名‘秦’이라고 하였는데, 석남본은 ‘秦’, 임신본은 秦이라 표기하였다. 이는 같은 글자를 판각하면서 모양을 조금 달리하였으나, 이는 모두 秦자라고 보겠다.²⁴⁾

⑥ 파른본은 ‘法’興諡이라 하였으나, 석남본에서는 이체자 ‘法’로 표기된 반면에 임신본에는 法이라 하였다. 이는 法자이다.

⑦ 그리고 법흥왕의 비를 파른본 妃‘巴刀’夫人이라고 하였다. 한편 석남본에서는 역시 ‘巴刀夫人’이라 하였지만, 이와 달리 임신본에는 ‘日丑夫人’이라 하였다. 그러나 파른본을 통해서 파도부인이 옳고 임신본의 日丑夫人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삼국사기》 권4 진흥왕 즉위조에서 법흥왕의 비를 保刀夫人이라 한 것에서도, 그 음가가 같음을 알 수 있다.

⑧ 이어서 법흥왕의 대표적인 치적을 서술하면서 파른본에서는 “始行十齋日”이라 하였다. 여기서 齋는 齋자의 고려 이체자라고 한다.

23) 冊府元龜는 宋代 王欽若 등이 칙령을 받들어 1005년(景德 2) 착수하여 1013년 완성한 책으로 1,000권, 목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대 君臣의 정치에 관한 사적을 帝王·閔位부터 總錄·外臣에 이르기까지 31部 1,115門으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24) 《삼국사기》 권4, 법흥왕 즉위조에도 ‘冊府元龜에는 성은 募이고 이름은 秦이라 하였다.’고 인용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석남본에도 역시 “始行十齋日”이라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임신본에서는 “始行十行日”이라 하였다. 이에서 파른본이 이 문장은 始行十齋日이 옳음을 보여주고 있다.

⑨ 제24대 진흥왕조에서 진흥왕의 아버지를 파른본에는 “立宗葛文王”이라 표기하였다. 이와 달리 석남본은 “立宋葛文王”, 그리고 임신본도 “立宋葛文王”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삼국사기》의 ‘葛文王 立宗’이라는 표기를 보아서도²⁵⁾ 파른본의 立宗葛文王이 정확하게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⑩ 그리고 진흥왕의 어머니를 서술하면서 母只召夫人에 이어 파른본에는 一作‘息’道夫人이라 하였다. 그러나 석남본에서는 △‘息’道夫人, 임신본에서도 ‘息’道夫人이라 표기하였다. 그런데 파른본의 ‘息’자는 息의 변형 표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息道夫人이 옳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진흥왕의 어머니가 息道夫人이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하겠다.

⑪ 이어서 식도부인의 아버지를 파른본에서는 “英史伯口”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석남본에는 “英史伯口”으로, 그리고 임신본에는 “英史伯口”라고 표기되어 있다. 파른본의 ‘史’는 ‘史’와 혼동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임신본에서는 ‘史’로 오자화되었다. 그러므로 ‘伯口’는 파른본에서 이미 오자화되어 임신본까지 연속되었다.²⁶⁾ 여기서 史는 史이고,²⁷⁾ 伯口는 아마 角干의 이표기라 하겠다.

⑫ 한편 제24 진흥왕조에는 그의 신상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연호 사용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 보면 중국 梁에서 한때 漢帝를 칭했던 侯景의 太始 辛未조에 해당하는 연도에 파른본에는 開國申‘末’

25) 《삼국사기》 권4, 진흥왕 즉위조.

26) 이부오, 앞의 논문, AKSR2013-C13 결과보고서.

27) 이것은 “2. 중고기 왕실계보의 복원과 재구성”의 ㉔에서 상술하겠다.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석남본에는 △未, 그리고 임신본에는 申未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파른본의 ‘未’은 사실상은 ‘未’자의 오기이다.

⑬ 제25 진지왕조에서 파른본은 “第二十五眞智王 名舍輪”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석남본은 ‘眞’, “舍”라고 표기되었고, 반면에 임신본은 차라리 ‘具’에 가깝고 “金”이라고 하였다.

⑭ 또 진지왕의 비를 파른본에는 妃‘知刀’夫人이라 하였다. 석남본도 역시 知刀夫人이라 하였으나. 임신본은 如刀夫人이라 하여 변형된 모양을 사용하였다.

⑮ 그리고 진지왕의 재위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파른본은 ‘理’四年이라 하였다. 석남본도 理라고 하였다. 그러나 임신본은 君자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문장의 서술순서나 문맥으로 보아 理가 옳다.

⑯ 진지왕의 무덤에 대해서는 파른본은 ‘陵在哀公寺’北이라 하였다. 그리고 석남본도 그러하다. 그러나 임신본에는 治喪善北이라 하였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 여러 왕의 장지에 대한 기록을 보건대 파른본이 옳을듯하다.

⑰ 제26 진평왕조에는 진평왕을 파른본에는 名‘白淨’父銅輪王—云東“輪”太子‘라고 하였다. 석남본에는 역시 名‘白淨’父銅輪王—云東“輪”太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반면에 임신본에는 名‘皇地’父銅輪王—云東“語”太子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파른본과 석남본의 표기가 옳고 임신본은 오류라 보겠다.

⑱ 또 진평왕의 비를 서술하면서 파른본은 ‘先’妃라고 하였다. 석남본 역시 先이다. 그러나 임신본은 ‘冢’자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뒤에 기록된 後妃와 대비하건대 先妃가 옳다고 보겠다.

⑲ 제28 진덕왕조에서 진덕왕의 아버지인 ‘眞平王之弟’는 파른본에서 國‘眞’安葛文王이라 했다. 그런데 석남본은 현재 상태로는 판단

이 불가하다. 반면 임신본에서는 國‘其’安葛文王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其는 眞과 글자 외형이 유사하므로 眞의 이체자인 眞의 오기일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이를 ‘國飯’ 또는 ‘國芬’이라 했다. 이것과 파른본의 ‘國眞安’은 글자 수가 달라 두 사서의 차이는 이체화보다 오자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 ‘飯’과 ‘眞安’의 자형이 서로 유사한 점, 그리고 《삼국사기》가 《삼국유사》보다 먼저 간행된 점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파른본 왕력이나 그 이전 판본에서 飯이 眞과 安으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를 전제로 임신본에서 재차 변형이 일어났을 것이다.²⁸⁾

⑳ 진덕왕 母의 아버지를 파른본에서는 “奴‘角干追封滿’天葛文王”이라고²⁹⁾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이 부분은 여러 판본간 판독에 가장 어려운 곳 중의 하나이다. 석남본은 판단이 불가하다. 반면에 임신본에서는 ‘角干追封滿天’을 ‘□進維嘉’이라 했다. 그 뒤 규장각본에서는 ‘天’의 ‘二’획의 우측 부분이 거의 손상되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 초간본에서 임신본에 이르는 동안 한 부분에서 오자, 변형, 결자, 글자 공간 삭제 등의 오류가 다양하게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진덕왕의 외조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에 비해 파른본 왕력은 진덕왕의 외조부인 奴의 관직이 角干에 이르렀고 그에게 추봉된 갈문왕 이름이 ‘滿天’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는 매우 새로운 사실이다.

㉑ 한편 중고기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태종무열왕의 가계에 대한 기록도 부가로 살펴보겠다. 제29 태종무열왕조에서 그의 아버지를 파른본에서 龍春‘角干’文興葛文王이라 했다. 여기서 角과 干은 거의 서로 붙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구자들간에 혼란을 겪었던 내

28) 어쩌면 國眞安葛文王은 國飯과 眞安의 합쳐진 표기일 수도 있겠다.

29) 다만 ‘滿’자는 ‘滿’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滿자로 판독하겠다.

용이다. 임신본에는 이를 ‘龍春卓文興葛文王’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흔히들 용춘의 추봉호가 ‘卓文興葛文王’이라 이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자는 파른본의 왕력에서 보듯이 ‘角干’의 자간 간격이 지나치게 작은 데서 생긴 오해의 결과이다.³⁰⁾ 다만 기이편 태종춘추공조에서 그를 文興大王으로 추봉했다고 했으니, 왕력과 기이편은 원래 용춘각간에 대한 표기에서 상호 모순은 없었던 것이다.

②② 또 이어지는 문장에서 태종무열왕의 어머니를 파른본에서는 ‘文眞大后’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임신본은 ‘又眞文后’라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감본에서 文貞, 又眞, 文眞 등으로 판독하였으나, 파른본에는 文眞으로 표기되어 있다.

②③ 그리고 태종무열왕의 비를 서술하면서 파른본에서는 庾‘信’之妹라고 하였다. 그러나 임신본에서는 庾‘立’之妹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왕비는 金庾信의 누이 文姬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파른본이 옳다.

②④ 부가하여 말하자면, 《삼국유사》 왕력의 시대구분에서도 오류가 있다. 왕력의 제28 진덕여왕조와 제29 태종무열왕조 사이에는 “已上中古聖骨 已上下古眞骨”이라는 문장이 기재되어 있다. ‘已上下古眞骨’에서 ‘已上’은 일찍이 ‘已下’의 오기라는 견해가 있었다.³¹⁾ 사실상 이는 같은 왕력에서 앞의 제22 지증왕조와 제23 법흥왕조 사이에 “已上爲上古 已下爲中古”라고 기록된 것과 비교해도 여기서 ‘已上’은 已下의 오기가 분명하다. 이러한 오기는 임신본에서도 계속되었다.

30) 이부오는 이를 ‘이러한 자간 간격이 모본에서도 동일했지는 알 수 없으나, 파른본 왕력이 이러한 오해의 한 원인을 제공한 점은 분명하다’고 하였다(이부오, 앞의 논문).

31) 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今西龍,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 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 이마니시 류, 《신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08, 44~45쪽).

아마 이는 최초의 필사본 단계보다 초간본~파른본의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추측이 있다.³²⁾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 [표 1]로 정리해 보겠다.

[표 1] 파른본·석남본·임신본 《삼국유사》 王曆 대조 비교

	해당 왕	파른본	석남본(필사)	임신본
1	제22지정마립간	一作智哲‘老’	老	名
2	제22지정마립간	期‘寶’葛文王	寶	宝
3	제22지정마립간	‘侯’攬代漢只登許	侯	作
4	제23범흥왕	‘用’府“元”龜	‘用’“元”	‘明’“山”
5	제23범흥왕	名‘秦’	‘秦’	‘秦’
6	제23범흥왕	‘法’興謚	法	法
7	제23범흥왕	妃‘巴刀’夫人	巴刀	日丑
8	제23범흥왕	始行十‘齋’日	齋	行
9	제24진흥왕	立‘宗’葛文王	宋	宋
10	제24진흥왕	一作‘息’道夫人	△息	息
11	제24진흥왕	‘英’“夫”“伯口”之女	‘英’“夫”“伯口”	‘父’“史”“伯口”
12	제24진흥왕	開國申‘未’	△未	未
13	제25진지왕	第二十五‘真’智王 名“舍”輪	‘真’“舍”	‘具’“金”
14	제25진지왕	妃‘知刀’夫人	知刀	如刁
15	제25진지왕	‘理’四年	理	君
16	제25진지왕	‘陵在哀公寺’北	좌동	治褒善

32) 상고·중고·하고는 《삼국사기》의 상대·중대·하대와 비교되어 王曆의 고유한 시대구분 인식을 보여주는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왕력에서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성골과 진골이라는 왕의 신분이다. 그러나 시대구분을 《삼국사기》와 다르게 제시하는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로 보아 상고·중고·하고라는 시대구분은 왕력을 찬술할 당시에 독자적으로 안출되었다기보다 찬술자 주변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나 저본에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이부오, 앞의 논문, 2013).

17	제26진평왕	名‘白淨’父銅輪王一云東“輪” 大子	‘白淨’ “輪”	‘皇地’“語”
18	제26진평왕	名行義‘先’	先	召
19	제28진덕왕	國‘真’安葛文王		其
20	제28진덕왕	奴‘角干’追封滿 天葛文王之女也		□進 維 基
21	제29무열왕	龍春‘角干’文興 葛文王		卓
22	제29무열왕	‘文’真“大”后		‘又’ “文” “后”
23	제29무열왕	庚‘信’之妹		立

이처럼 파른본 《삼국유사》의 왕력에는 다른 본과 달리 보다 분명한 표기가 더러 확인된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신라사 이해에 곤란을 겪어오던 부분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2. 중고기 왕실계보의 복원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존에 널리 이용하던 판본의 《삼국유사》 왕력에서 신라 중고기 왕실의 인물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이 파른본을 통해 새로이 확인되었다.

신라 중고기 왕실계보를 재구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파른본에서는 제22대 지증마립간의 妃를 ‘迎帝夫人’이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삼국사기》에는 延帝夫人이라 기록되어 있어 논란이 있지만,³³⁾ 여기서는 영제부인이라고 분명히 표기하였다.

사실상 신라 중고기 왕실의 가계를 복원하려면 우선 중고기 왕통의

33) 《삼국사기》 권4, 지증왕 즉위조. “왕비는 朴氏 延帝夫人으로 이찬 登欣의 딸이다.”

시작인 지증왕의 출자와 가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 왕력에는 ‘지증왕의 아버지는 눌지왕의 아우인 期寶葛文王이고 어머니는 烏生夫人으로 눌지왕의 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삼국사기》에는 “나물왕의 증손으로 翳寶葛文王의 아들이고 炤知王의 再從弟이며, 어머니는 김씨 烏生夫人으로 눌지왕의 딸”이라고³⁴⁾ 하였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지증의 아버지 습보가 나물의 증손이 되고, 습보(기보)가 눌지의 아우가 된다. 이러한 기록의 불일치로 인해서 연구자간에 지증왕의 선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에 따라 습보를 눌지의 아우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³⁵⁾

㉔ 특히 제23대 법흥왕의 비에 대해서는 임신본을 보면 그녀의 이름을 ‘曰丑’처럼 보이게 판각되어 있지만, 파른본에는 ‘巴刀’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녀가 巴刀夫人임을 알 수 있다.

㉕ 한편 제24대 진흥왕의 어머니를 파른본에서도 ‘只召夫人 一作息道夫人 朴氏 牟梁里 英史伯口之女’라 하였다. 이는 임신본과 마찬가지로 식도부인의 아버지를 ‘英史伯口’라 한 것은 잘못이고, 곧이어 필자가 상술하겠지만 실제로는 ‘英史’는 ‘英失’이고, ‘伯口’는 ‘角干’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 보겠다.

㉖ 즉, 이어지는 제25 진지왕조에서, 임신본에서는 진흥왕의 아들인 진지왕의 어머니가 英失角干의 딸인 ‘息〇’라 해서 한 글자가 누락됐지만, 파른본에는 명확히 “母英失角干之女息途夫人 一作色刀夫人 朴氏”라 하여 ‘息途’라고 표기하였다. 이에 의하여 《삼국유사》

34) 《삼국사기》 권4, 지증왕 즉위조.

35) 翳寶의 부인인 烏生夫人이 눌지의 女로 되어 있어 만일 《삼국사기》에 따른다면 조생부인이 습보보다 1세대 윗대에 속하여야 된다. 또 《삼국사기》에 따르면 炤知와 善兮의 혼인도 문제가 된다(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연구》, 일지사, 1977, 93쪽).

왕력의 제25 진지왕조에서 진지왕의 어머니가 息途夫人一作色刀夫人 朴氏이고 그녀의 아버지가 英失角干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바로 앞의 제24 진흥왕조에서 진흥왕의 어머니를 ‘只召夫人一作息道夫人 朴氏 牽梁里英史伯口之女’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 두 기록을 조합하면 진흥왕의 어머니는 只召夫人이고, 진지왕의 어머니가 되는 진흥왕의 비는 息道夫人 朴氏이다. 그리고 파른본의 제24 진흥왕조에서 ‘英失’는 제25 진지왕조에서 보듯이 ‘英失’에 대한 잘못된 기록이다. 결국 진지왕의 어머니이며 진흥왕의 비인 息途夫人은 모량부의 박씨이고 그녀의 아버지는 이름이 英失이며 관등이 角干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㉔항을 《삼국유사》 왕력의 기술방법에 따라 수정하여 보완하면 “眞興王 … 父卽法興王弟立宗葛文王 母只召夫人金氏 法興王之女 妃色刀夫人一作息途夫人 朴氏 牽梁里英失角干之女”라고 복원하겠다.³⁶⁾

㉕ 제26 진평왕조에서 ‘名白淨父銅輪王一云東輪大子’라 하였다.

㉖ 제28대 진덕여왕의 아버지 ‘眞平王之弟’는 흔히 國飯과 동일인으로 추정되어 지는데, 그의 이름이 ‘國其安葛文王’이 아니라 國眞安葛文王으로 표기되어 있다.

㉗ 그리고 진덕여왕의 어머니를 阿尼夫人이라 하면서, 파른본에서는 그녀의 아버지를 ‘奴角干追封滿天葛文王’이라고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니부인의 아버지가 奴 角干인데 추봉된 갈문왕 이름이 ‘滿天’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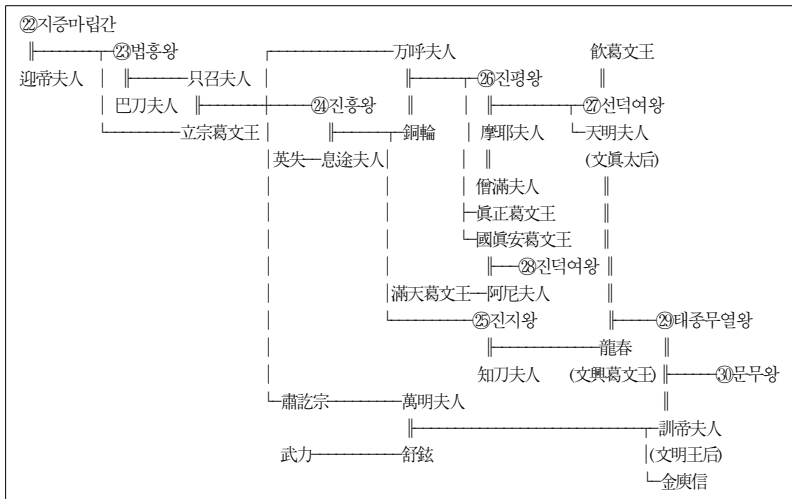
36) 한편 문경현은 ‘妃色途夫人一作息道夫人’이라고 복원하였다(문경현, <시왕설과 선덕여왕> 《백산학보》 52, 1999, 그리고 《삼국사기》 권4, 진흥왕 즉위조에서는 “(진흥왕) 어머니는 김씨로 법흥왕의 딸이고, 왕비는 박씨 思道夫人이다.”고 하였다.

⊙ 한편 제29대 태종무열왕의 아버지는 다른 본에서 ‘龍春卓文興葛文王’이라 한 것과 달리 파른본에서 ‘龍春角干文興葛文王’이라 하여 卓文興이 아니라, 이름과 관등이 龍春 角干이고, 그의 추봉된 이름이 문흥갈문왕임을 알 수 있다.

⊗ 또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어머니 天明夫人은 죽은 뒤에 시호를 다른 판본에서 ‘文貞’太后라 한 것과 달리 파른본에서는 ‘文眞’이라 하였다.

위의 내용을 사용하여 왕실계보도를 복원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에 의한 신라 중고기 왕실계보도



III. 중고기 왕위계승 과정과 성격

신라 중고기는 신라사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

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연구도 많은 부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고기의 정치과정과 정치세력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차이가 크다. 때문에 같은 내용의 사료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접근과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때때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시기 왕위계승에 대한 이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라시대 왕위계승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다.³⁷⁾ 신라왕실의 친족구조와 왕위계승에 대한 연구 성과를 크게 보면, ① 母系에서 父系로의 전환, ② 家父長·父子繼承, ③ 二重出系(double descent), ④ 兩邊出系(bilateral), ⑤ 選系(ambilineal), ⑥ 非單系(non-unilineal, 父系血緣集團의 非存在) 등 여섯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신라시대 全時期의 왕위계승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견해이다.

그러면 이들이 신라 중고기의 왕위계승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종합 정리하면 ㉠ 부자계승원칙의 붕괴, ㉡ 부자계승, ㉢ 부계계승, ㉣ 모계계승의 존속, ㉤ 비단계적 계승, ㉥ 선계적 계승, ㉦ 양계계승 등으로 각각 다르게 보고 있다. 한편 신라 중고기의 왕위계승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도 있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중고기 정치적 변화와 왕위계승을 관련시켜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부터 중고기 왕위계승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겠다.

37) 연구사적 정리로는 최재석, <신라왕실의 왕위계승> 《역사학보》 98, 1983 :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83 ; 이종욱, <신라시대의 혈연집단과 상속> 《역사학보》 121, 1989 ; 김창겸, <연구사정리>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등이 있다.

1. 중고기 왕위계승과정 검토

1) 제22대 지증왕의 왕위계승

먼저 신라 제22대 지증마립간의 왕위계승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삼국사기》 권4 지증마립간 즉위조에서는 “智證麻立干이 왕위에 올랐다. 姓은 김씨이고 이름은 智大路이고(智度路 혹은 智哲老라고도 한다) 나물왕의 증손으로 翳寶葛文王의 아들이며 炤知王의 再從弟이다. 어머니는 김씨 鳥生夫人으로 눌지왕의 딸이다. 왕비는 박씨 延帝夫人으로 이찬 登欣의 딸이다. 왕은 체격이 매우 컸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났다. 전왕이 아들이 없이 죽었으므로 왕위를 이어 받았다(前王薨無子故繼位). 당시 나이는 64세였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증왕과 전왕 소지왕은 혈연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증왕은 정상적인 왕위계승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지증왕과 소지왕의 친족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지증왕의 가계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 눌지왕 ─ 자비왕 ─ 소지왕 나물왕 ─ 卜好 └─ 未斯欣 ┌─ ? ─ 翳寶葛文王 ─ 지증왕	┌─ 눌지왕 ─ 자비왕 ─ 소지왕 나물왕 ─ 寶海 └─ 美海 ┌─ 期寶葛文王 ─ 지증왕

위의 [그림 2]에서 보듯이 소지왕의 친족관계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차이가 크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삼국사기》에 따르면 지증왕은 소지왕의 再從弟이고, 《삼국유사》에 따르면 父系로 지증왕은 소지왕의 再從叔

의 관계이다.³⁸⁾ 하지만 필자는 소지왕대에 지증왕이 갈문왕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염두에 두어 보다 가까운 친족관계인 자비왕의 종제로 표기된 《삼국유사》를 따르겠다.

어쨌든 지증왕이 소지왕의 아들이 아니었기에 정상적인 부자계승을 한 것을 아니었다. 그러면 지증왕이 어떤 방법과 형태로써 계승하였을까? 현재 학계에서는 지증왕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다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승하였다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

먼저 정상적인 방법이었던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신형식은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지증왕은 소지왕의 從弟로서 繼位³⁹⁾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친족관계에 대해서는 잘못 말하였다. 그리고 이종욱은 《삼국유사》의 기록은 ‘지증왕의 왕위계승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증왕을 내물왕의 증손보다는 손으로 만들기 위해 한세대를 뺀 것’이며,⁴⁰⁾ 지증왕은 내물왕의 증손이라는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다고⁴¹⁾ 하면서, 더욱이 최근에는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존하여 지증이 副君이라는 지위에 있어 정치제도적으로 소지왕을 이을 왕위계승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라 하였다.⁴²⁾

선석열은 지증왕이 마립간기 왕권을 보좌하는 갈문왕으로 존재하

38) 이에 대해 《삼국유사》의 기록을 더 신빙하기도 하고(이기동, <신라 내물왕계의 혈연의식> 《역사학보》 53·54합집, 14~18쪽. 66~71쪽), 《삼국사기》의 기록을 더 신빙하기도 한다(이종욱, 《신라상대왕위계승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0, 31~33쪽과 85~93쪽).

39) 신형식, 《삼국사기의 종합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212쪽.

40) 이종욱, 앞의 책, 1980, 32쪽.

4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지증왕 선대에 대한 기록을 종합하여 내물왕 - 기보갈문왕 - 습보갈문왕 - 지증왕으로 계보를 복원하였고, 아울러 세대수의 감소경향은 《삼국유사》 왕력의 한 특성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이종욱, 같은 책, 91~93쪽).

42) 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대역화랑세기》, 소나무, 2005, 19쪽 주9.

고 있다가 소지왕의 사망으로 김씨 내물왕 직계 왕통이 소멸되자 중앙지배층의 합의에 따라 503년 정식 국왕에 추대된 것이라고⁴³⁾ 하였다. 또 김희만은 소지왕의 실정에 따른 폐위이며 왕위계승서열이 앞섰던 지도로가 자연스럽게 추대 형식으로 왕위를 이었으며,⁴⁴⁾ 지증왕의 즉위는 비정상적이었다기 보다는 당시 사회의 미숙성에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⁴⁵⁾

이에 비해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계승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1989년 3월 영일 냉수리 신라비가 발견된 이후로, 그 비문에 보이는 至都盧葛文王을 지증왕으로 이해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써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구복은 ‘지증왕은 500년(소지왕 22) 11월경 소지왕을 권좌에서 밀어내고 유폐시켜 정치적 실권을 잡고 갈문왕으로 있다가 소지왕이 죽은 후에 정식 왕으로 즉위한 것’으로 보았다.⁴⁶⁾

이희관 또한 정구복의 설을 지지하면서 ‘지증왕의 즉위는 지증왕계 가계와 박씨족의 연합을 기반으로 非常한 방법으로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⁴⁷⁾ 심지어 문경현은 ‘지증왕이 정변을 일으켜 소지왕을 축출하고 왕위를 차지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⁴⁸⁾ 후보돈도 중고기

43) 선석열, <마립간기의 왕권과 갈문왕> 《신라문화》 22, 2003, 110쪽.

44) 김희만, <영일 냉수리비와 신라의 관등제> 《경주사학》 9, 1990.

45) 김희만, <신라 지증·법흥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경북사학》 23, 2000, 10쪽.

46) 소지왕은 유폐되었다가 지증왕 3년 3월에 죽었던 듯하며, 그래서 지증왕은 503년(지증왕 4) 癸未 건립된 영일냉수리신라비에서 소지왕이 아직 죽지 않아 정식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이라 갈문왕을 칭하였다(정구복, <영일냉수리비의 금석학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3, 1990, 42~43쪽).

47) 이희관, 앞의 논문, 1990, 67~104쪽.

48) 문경현, <영일 냉수리 신라비에 보이는 부의 성격과 정치운명문제> 《영일 냉수리 신라비(가칭)의 종합적 검토》, 1989, 57쪽.

정치는 나물왕계와 지증왕계 사이 갈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으며, 지증왕계 내부 가계의 정치적 대립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나물왕의 방계인 지증왕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직계인 소지왕을 몰아내고 즉위하면서부터’라고⁴⁹⁾ 하였다. 또 장창은은 ‘지증왕이 군사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소지왕의 失政을 명분으로 삼아 왕비족 박씨세력과 지방세력의 지지를 받아 즉위한’ 것으로 보았다.⁵⁰⁾

한편 지증왕의 왕위계승에서 밀접하게 언급되는 것이 지증왕의 왕비에 대한 이해이다. 지증왕의 비를 《삼국사기》에는 登欣의 딸 延帝夫人, 《삼국유사》 왕력에는 等許의 딸 迎帝夫人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박씨라고 한다.⁵¹⁾ 종전의 신라 마립간기 왕비들이 대부분 김씨인 것과 달리 지증왕비 영제부인은 박씨이다. 그리고 이후 중고기 왕비들이 대부분 박씨로 나타나고 있어, 연구자들은 신라 중고기 박씨 왕비족의 존재를 상정하기도 한다. 아마 영제부인 박씨는 남편 지증왕이 즉위 당시 64세였다고 하므로 왕이 되기 전에 지증왕과 혼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²⁾

49) 주보돈, <비담의 난과 선덕여왕대 정치운영>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일조각, 1994, 221쪽 주26.

50) 장창은, <신라 지증왕의 집권과 대고구려 방위체계의 확립> 《한국고대사연구》 45, 2007, 101~110쪽.

51) 여기서는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의 표기대로 迎帝夫人이라고 한다.

52) 지증왕 이후 박씨족이 왕비족으로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내물왕 직계에 소외되어 있던 지증왕계가 박씨족과의 연합을 통해 왕위를 계승하고 이후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고 보는 설, 중고기에는 왕권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왕의 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김씨 족내혼을 피하고 박씨족과 혼인하였다고 보는 설이 있다. 한편 영제부인과 牟梁里 相公의 딸을 지증왕이 즉위전에 혼인한 사실로 보아 양자가 동일인이라는 대부분 연구자의 설과, 이와 달리 전자는 지증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혼인했던 正妃였고, 후자는 즉위 후 맞이한 后妃로 보는 주장이 나누어져 있다(장

사실상 앞서 눌지왕과 아들 자비왕, 그 아들 소지왕은 모두 왕위의 부자계승을 하였다. 지증왕에 이르러 비부자계승이 나타난 것은 혈연상으로는 비정상계승이다. 지증왕이 즉위한 데에는 힘의 논리,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비정상적 계승이었기에 계속해서 葛文王 호칭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소지왕이 죽은 뒤인 503년(지증왕 4) 10월에 종전의 최고통치자를 일컫는 마립간 대신에 ‘王’호를 칭하고 국호를 新羅라 확정하였는데, 이는 지증왕이 비정상적으로 즉위한 것을 인증받아 합리화하고 정통성 결여를 탈색하기 위한 이벤트였고 절차의식이었다.

여기에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증왕은 어떠한 배경과 방법으로 즉위하였는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다. 혈연적으로 나물왕의 후손이라 아버지 期寶(習寶)⁵³⁾ 눌지왕 형제로서 가졌던 갈문왕의 지위를 지증왕은 자비왕의 종제로서 역시 가졌다. 또 소지왕이 실정으로 폐위되었으나, 碧花란 여인과의 야합으로 낳은 그의 아들이 너무 어리고 더구나 정통성이 결여되어 즉위하지 못하였기에 갈문왕 지증이 실질적인 왕의 대리자(부군 또는 섭정?) 역할을 하다가 정치적 힘으로 마침내 왕위를 차지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2) 제23대 법흥왕의 왕위계승

제23대 법흥왕의 왕위계승에 대해 살펴보자.

《삼국사기》 권4, 법흥왕 즉위조에 “법흥왕은 이름이 原宗이고, 지증왕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延帝夫人”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의거하여 법흥왕의 왕위계승은 지증왕의 장남으로 계위한 것으로 이해

창은, 앞의 논문, 110쪽).

53) 《삼국유사》의 期寶는 習寶의 오기이며, 기보와 습보는 동일인이라고 한다(문경현, 앞의 논문, 1999, 287쪽).

된다.⁵⁴⁾ 아마 지증왕은 64세의 고령으로 즉위하자마자 장남인 원종을 태자와 같은 위상을 가진 왕위계승자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종이 지증왕이 죽은 뒤에 계위하여 법흥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흥왕의 비인 保刀夫人은 巴刀夫人이라 하며, 천전리 각석에는 夫乞支妃로 표기되어 있다. 비록 그녀의 가계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박씨로 기록되어 있어서 지증왕비 박씨와 출신 기반이 비슷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결국 앞서 내물왕 - 눌지왕 - 자비왕 - 소지왕으로 이어진 왕위계승에서 행해졌던 부자계승원칙이 지증왕의 즉위로 궤도를 벗어났다가 법흥왕의 즉위로 다시 정상화된 것이다. 그리고 법흥왕 역시 부자계승을 행하고자 장자 東輪을 태자로 책봉하면서 태자책봉제가 시작되었다.⁵⁵⁾

3) 제24대 진흥왕의 왕위계승

제24대 진흥왕의 왕위계승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

우선 《삼국사기》 권4, 진흥왕 즉위조에 “법흥왕의 아우 葛文王 立宗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김씨로 법흥왕의 딸이고, 왕비는 朴氏 思道夫人이다. 왕이 어렸으므로 王太后가 섭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거하여 어떤 연구자는 진흥왕은 법흥왕의 조카로서 계위한 것으로 이해한다.⁵⁶⁾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진흥왕은 진왕 법흥왕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상적인 왕위계승으로 여기는 부자계승은 아닌 것이다. 진흥왕은 부계로는 법흥왕의 아우 立宗의 아들이니, 사실상 조카계승

54) 신형식, 앞의 책, 2011, 212쪽.

55) 김창겸, <신라시대 태자제도의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13, 1993, 156쪽.

56) 신형식, 앞의 책, 2011, 212쪽.

인 것이다. 이에 비해 모계로는 어머니가 법흥왕의 딸인 지소부인의 아들로써 계승한 것이니, 외손계승인 것이다. 결국 진흥왕의 왕위계승은 그 형태로는 찬탈이라든가 추대라는 비평화적 계승은 아니었지만 부자계승의 원칙을 벗어난 비정상적 계승이었다.

더구나 진흥왕의 즉위시 나이가 어려 (왕)태후가 섭정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진흥왕의 즉위시 나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는 7세, 《삼국유사》에는 15세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선행 연구자들은 7세 설을 따르고 있다.⁵⁷⁾

비록 진흥왕의 즉위시 나이에 대한 기록과 또, 그에 대한 이해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가 어려서 섭정을 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고 있다. 섭정자를 太后와 王太后로 기록되어 있는데, 李丙燾가 태후는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태후, 왕태후는 법흥왕의 비라고⁵⁸⁾ 한 이후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⁵⁹⁾ 그러나 이 견해는 잘못이다. 태후나 왕태후는 동일인이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왕위계승자를 지칭한 太子와 王太子는 동일한 인물에게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듯이, 태후나 왕태후는 동일한 의미라 하겠다. 그러므로 섭정은 진

57) 한편 김창겸은 진흥왕의 즉위시 나이를 《삼국사기》에서 7세, 《삼국유사》에서 15세라 한 기록이 있음에 주목하여 양자를 다 인정하는 해석을 하였다. 즉 법흥왕이 말년에 출가하여 진흥왕이 왕위를 계승한 해가 7세(법흥왕 23년)였고, 《삼국사기》에 진흥왕이 즉위한 것으로 기록된 연도는 사실은 법흥왕 사망한 해(법흥왕 27)로 이때 진흥왕의 나이가 11세였으며, 이후 진흥왕이 왕태후의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으로 들어간 것이 15세가 되었던 때(진흥왕 5)라고 하였다(김창겸, <신라 진흥왕의 즉위과정> 《한국상고사학보》 23, 1996, 184~185쪽).

58) 이병도, 《국역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56쪽.

59) 이정숙, 《신라중고기정치사회연구》, 혜안, 2012, 28쪽 ; 박남수, <울주 천전리 서석명에 나타난 진흥왕의 왕위계승과 입종갈문왕> 《한국사연구》 141, 2008 :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2013, 140쪽.

흥왕의 어머니 지소태후인 것이다.⁶⁰⁾ 이 只召太后는 只沒尸兮로도 표기된다. 그녀는 법흥왕의 딸로서 숙부에 해당하는 지증왕의 아들이자 법흥왕의 동생인 입종갈문왕과 혼인하여 갈문왕비가 되었다. 입종갈문왕과 지소부인의 혼인은 신라 왕실의 근친혼 중에서는 매우 가까운 혈족끼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540년 진흥왕의 즉위에 지소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⁶¹⁾ 그리고 幼少한 진흥왕이 즉위한 후에는 지소부인이 왕태후로서 섭정하였다.

그런데 《삼국유사》 권3, 興法3 原種興法과 《해동고승전》 권1, 流通1 釋法空에는 전왕 법흥왕이 생전에 출가하여 불가에 귀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서 법흥왕이 출가하기 이전에 진흥왕에게 讓位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⁶²⁾

법흥왕의 아우이며 진흥왕의 아버지인 입종은 법흥왕보다 먼저 죽었던 것 같다. 그래서 법흥왕의 딸인 지소부인이 왕위에 올라야 하지

60) 김용선, <울주 천전리서석 명문의 연구> 《역사학보》 81, 1979, 16~17쪽 : 이기동, <신라화랑도 연구의 현단계>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1994, 156쪽 ; 김창겸, 앞의 논문, 1996, 168쪽 ; 이정숙, 앞의 책 29쪽. 이와 달리 지소태후는 진흥왕 즉위 이전에 죽고 없어서 법흥왕비가 섭정했다는 견해도 있지만(최숙경, 《한국여성사 I》, 이화여대출판부, 1978, 82쪽 ; 김기홍, 앞의 책, 2000, 118~119쪽 ; 박남수, 앞의 책, 2013, 135~144쪽), 《삼국유사》에서 법흥왕비 보도부인은 535년(법흥왕 22) 永興寺에 출가하여 법호는 妙法 혹은 法流이라 하면서 지내다가 몇 년 뒤 죽었다는 기록이 있음으로, 섭정을 하지 않은 것이 옳겠다.

61) 이종욱, 앞의 책, 1980, 95쪽. 한편 남도영은 법흥왕이 아들이 없이 사망하자 왕제인 입종의 어린 아들 진흥왕을 신라 유력귀족(대등)들이 화백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여기에 그의 어머니가 법흥왕의 왕녀였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남도영, <진흥왕의 정치사상과 치적> 《통일기의 신라사회 연구》, 경상북도·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1987, 73쪽).

62) 이정숙, <진흥왕의 즉위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부산여대사학》 12, 1994 ; 김창겸, 앞의 논문, 1996, 197~168쪽.

만, 그녀는 이미 혼인하였기에 왕위계승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런 까닭에 생존한 법흥왕의 가장 가까운 혈족인 그녀의 작용으로 아들 진흥왕이 어린 나이임에도 계승한 것이다. 여기에는 법흥왕이 생전에 불가에 귀의하기에 앞서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하겠다.

더구나 울주 천전리 각석에는 법흥왕 말년인 539년(법흥왕 26) 7월 3일에 夫乞支妃(보도부인)는 딸인 입종갈문왕의 비 只沒尸兮(지소)와 입종갈문왕의 아들 深昧夫支(진흥왕)와 함께 천전리에 행차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왕위계승권과 관련된 정치적 행사로 외손자 진흥왕의 즉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⁶³⁾

즉 법흥왕의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아우 입종마저 일찍 죽음에 왕위를 넘보는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법흥왕은 나이 어린 조카 진흥을 왕위계승자로 정하여 양위를 하였으며, 또 보도부인과 진흥과 그의 어머니 지소부인은 천전리를 찾아가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써 진흥왕의 왕위계승자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였던 것이다.

물론 진흥왕의 즉위는 그가 법흥왕의 조카, 법흥왕의 외손, 지증왕의 손이라는 혈연 요인이 작용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법흥왕의 생전 양위와 법흥왕 말년에 최종적으로 법흥왕비의 지원을 받은 진흥왕 어머니 지소부인의 정치적 힘이 크게 작용하여⁶⁴⁾ 결정된 결과라 하겠다. 이와 더해 전왕의 외척인 박씨족의 영향력,⁶⁵⁾ 내물계로 당대 최고 귀족가문 중 하나인 거칠부 세력⁶⁶⁾ 등이 부가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63) 이미 입종갈문왕이 죽은 상황에서 법흥왕 말년인 539년 법흥왕비와 입종갈문왕비 그리고 진흥왕이 동행하여 입종갈문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천전리에 함께 가 법흥왕비 박씨의 지지를 받아 법흥왕 사후 진흥왕의 왕위계승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았다(이희관, 앞의 논문, 1990, 89~93쪽).

64) 김창겸, 앞의 논문 1996, 175쪽.

65) 이종욱, 앞의 책, 1980, 256쪽 ; 정효운, 앞의 논문, 1986, 16~17쪽 ; 이희관, 앞의 논문, 1990, 90~93쪽.

것이다.⁶⁷⁾

4) 제25대 진지왕의 왕위계승

한편 제25대 진지왕의 왕위계승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⁶⁸⁾

《삼국사기》 권4, 진지왕 즉위조에는 眞智王의 “이름은 舍輪이고 (혹은 金輪이라고도 한다),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思道夫人이고 왕비는 知道夫人이다. 태자가 일찍 죽었으므로 진지가 왕위에 올랐다.”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진지왕은 진흥왕의 장자가 아니다. 장자 銅輪은 진흥왕 27년(566) 태자에 책봉되어 왕위계승자로 지명되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572년(진흥왕 33) 3월에 죽었다. 그렇다면 부자계승을 전제로 하는 태자책봉제를 시행한 진흥왕대의 사정으로 보아 왕위는 진흥왕의 적장손자이며 동륜태자의 아들인 白淨에게 이어져야 순리이다. 하지만 실체는 백정이 아니라 둘째 아들 진지왕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모종의 비정상적인 작용의 결과였을 것이다.

결국 진지왕의 즉위는 왕위계승의 원칙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것이다.⁶⁹⁾ 이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은 진지왕이 즉위한 것은 진흥왕의 次子로서 조카 - 동륜의 아들인 백정의 나이가 어려 年長者 우선⁷⁰⁾

66) 박성희, <신라 진흥왕 즉위 전후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179쪽.

67) 아버지 邑中갈문왕의 힘이라는 견해도 있으나(문경현, <울주 신라 서석 명기의 신검토> 《경북사학》 10, 1987, 52쪽), 邑中은 이미 이전에 죽고 없었다.

68) 이에 대해서는 김덕원, 《신라 중고 정치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7에 잘 정리되어 있다.

69) 김영하, <신라 중고기 정치과정 시론> 《태동고전연구》 4, 1988 : 이명식, <신라 중대왕권의 전제화과정> 《대구사학》 38, 1989.

70) 심우준, <신라왕실의 혼인법칙> 《조명기박사화갑기념 불교사학논총》,

또는 優秀者의 원리에⁷¹⁾ 의하여 즉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한편으로는 동륜태자가 사망한 후 아직 연령이 40대인 진흥왕으로서는 미리 後嗣를 정해놓지 않은 채 薨去하였을 것이고,⁷²⁾ 그래서 진지왕은 진흥왕의 차남으로 찬탈하였다는⁷³⁾ 견해를 제기되었다. 즉 진흥왕 후기의 정국동향과 관련하여 572년(진흥왕 33) 太子 銅輪의 죽음 이후 진흥왕이 말년에 승려로 일생을 마친 사실로⁷⁴⁾ 미루어 次男과 嫡孫 사이에 불화와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⁷⁵⁾

그러면 진지왕의 비정상적인 즉위를 지원한 힘은 무엇일까? 많은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동안 진지왕의 즉위는 居柒夫의 무력 배경을 도움 받아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주류가 되다시피 하면서,⁷⁶⁾ 한편에서는 加耶系의 武力도 함께 도움을 주었다는 견해가 새롭게 제기되었다.⁷⁷⁾ 거칠부가 진지왕의 즉위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智證王系 直系卑屬에 의한 권력 독점이란 현실에 제동을 걸어, 정통성이 결여된 진지왕을 추대함으로써 왕권의 약체화를 노려

1965 ; 박성희, 앞의 논문, 2001, 172쪽.

71) 정효운, <신라 중고시대의 왕권과 개원에 관한 연구> 《고고역사학지》 2, 1986.

72) 중좌로 동륜태자가 사망한 그해에 北齊에 보낸 조공을 끝으로 무려 20년간 대중교섭이 없었던 사실은 들기도 한다(이정숙, 앞의 책, 2012, 67쪽).

73) 신형식, 앞의 책, 2011, 212쪽.

74) 진흥왕 말기의 정국은 왕위계승 문제로 혼미했고, 국가운영은 뜻대로 되지 못하여 진흥왕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고, 게다가 정복전쟁에서의 대규모 살육 또한 마음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진흥왕은 薨去할 때까지 연속해서 불교행사를 열고 드디어 불교에 歸依라는 형태로 나아갔다고 한다(이정숙, 앞의 책, 2012, 68쪽).

75) 신형식, 앞의 책, 2011.

76)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113쪽 : 이정숙, 앞의 책, 2012, 59쪽.

77) 선석열, <신라사 속의 가야인들>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2001.

지증왕계 왕권중심체제가 아닌 범내물왕계의 귀족연합체제로의 복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⁷⁸⁾

그러나 연구자들은 진지왕이 동륜 태자의 아들인 白淨(진평왕)과의 갈등 끝에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하면서도, 즉위과정에서 왕비계 세력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들고 있다. 진지왕의 비는 知道夫人으로 박씨이며 起烏公의 딸이다. 지도부인이 박씨라는 점에서 박씨 왕비족 세력이 진지왕의 지지 세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신라 중고기 왕비 가운데 지도부인의 아버지만 유일하게 갈문왕 칭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왕비계 세력이 진지왕의 즉위에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더구나 진지왕의 즉위에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은 거칠부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서 말년에 불법에 귀의한 진흥왕이라는 주장도 있다.⁷⁹⁾

이렇듯 진지왕의 왕위계승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통설은 없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필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진지왕은 혈연적으로 진흥왕의 아들이지만 차자이기에 처음부터 왕위계승예정자는 아니었다. 본디 왕위계승자로 책봉된 장자 동륜태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대신 즉위하였다. 즉 진흥왕이 죽은 뒤 왕위는 부자계승원칙에 따라 동륜태자의 나이 어린 아들 백정이 즉위하

78) 김영하, 앞의 논문, 1988 ; 이정숙, 앞의 책, 2012, 62쪽. 그러나 거칠부가 진지왕의 즉위에 도움을 주었던 것은 당시 백제와 고구려의 계속되는 침략으로부터 확대된 신라 영토를 보전하고, 진흥왕이 실시하였던 불교정책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김덕원, 앞의 책, 2007, 54쪽).

79) 김병곤, <신라 중고기 지배 집단의 정치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사학연구》 76, 2004, 1~31쪽. 더구나 진지왕도 진흥왕의 불교에 출가 이전에 양위 내지 攝政을 하여 진흥왕 후기의 정국을 주도하며 정치적 경륜을 쌓아갔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김덕원, <진지왕의 즉위에 대한 재검토> 《백산학보》 63, 2002), 좀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듯하다.

여야 하나, 숙부 진지가 연장자로서 당시 거칠부를 비롯한 정치세력의 도움을 받아 모종의 비상수단으로 즉위한 것이라 보겠다. 결국 진흥왕의 아들이라는 혈연요인에다가, 경쟁자인 조카 백정보다 연장자라는 현실적인 비교 우위적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되어, 당시 가장 막강한 귀족세력인 거칠부의 도움으로 즉위하였다.

5) 제26대 진평왕의 왕위계승

한편 제26대 진평왕의 왕위계승에 대해서는 살펴볼 바가 많다.

《삼국사기》 권4, 진평왕 즉위조를 보면 眞平王은 “이름이 白淨이고 진흥왕의 태자 銅輪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 萬呼夫人으로 葛文王 立宗의 딸이다. 왕비는 김씨 摩耶夫人으로 葛文王 福勝의 딸이다.”고 하였다.

이에서 보듯이, 진평왕은 전왕 진지왕의 아들이 아니라 진지왕의 형인 동륜태자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진지왕과 진평왕의 친족관계는 숙부와 조카 사이이다. 다시 말해 진평왕은 진지왕으로부터 혈연적으로 정상적인 부자계승이 아니라 비정상적 계승을 하였다.

이러한 진평왕의 왕위계승에 대해 진지왕의 조카(질)로서 추대되었다는 주장이 있다.⁸⁰⁾ 사실 진지왕은 제대로 정책을 펴보지도 못한 채 고작 재위 3년만에 ‘荒淫政亂’을 이유로 폐위되었다.⁸¹⁾ 연구자들은 진평왕의 왕위계승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전왕 진지왕의 폐위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⁸²⁾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80) 신형식, 앞의 책, 2011, 212쪽.

81) 《삼국유사》 권1, 기이1 桃花女鼻荊郎. 한편 진지왕이 폐위된 이유를 김씨가 아닌 朴氏 起烏公의 딸을 왕비로 맞았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82) 이희관, 앞의 논문, 1990 ; 김병근, <진평왕의 즉위와 지증왕계 인물들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6, 2009 ; 박해현, <신라 진평왕대 정치세력의 추이> 《전남사학》 2, 1988.

이 문제는 크게 진지왕 개인의 失政과⁸³⁾ 정치세력과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정치세력과의 대립은 眞骨貴族이나⁸⁴⁾ 銅輪系와의⁸⁵⁾ 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사상적인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고 있다.⁸⁶⁾ 대부분 연구자들은 《삼국유사》의 桃花女·鼻荊郎 설화를⁸⁷⁾ 인용하면서 진지왕의 폐위를 ‘政亂荒婬’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진지왕 재위 기록과 《삼국유사》의 ‘聖帝’라는 기록을 통해서 진지왕의 폐위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어쨌든 진평왕의 즉위는 진지왕 폐위와 불가분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진평왕의 즉위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지왕 폐위라는 정치사건의 결과로서 성립된 사건이다. 진지왕과 진평왕이 숙질간이기는 하나 전왕인 진지왕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진지왕을 폐위시킨 세력에게 의하여 추대되어짐으로써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결국 진평왕의 왕위계승은 바로 직전 왕과의 혈연관계보다는 왕위계승예정자였던 동륜태자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반진지왕세력의 정치적 힘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83) 문경현, 앞의 논문, 1987 ; 이정숙, 앞의 책, 2012 ; 후보돈, 앞의 논문, 1994.

84) 박해현, 앞의 논문, 1988 ; 박용국, <신라 진지왕의 폐위와 진평왕 초기의 정치적 성격> 《대구사학》 85, 2006.

85)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 박남수, <통일주도세력의 형성과 정치개혁> 《통일기의 신라사회 연구》, 경상북도·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1987.

86) 강영경, <신라 진평왕대 무불관계에 대한 일고찰> 《속대사론》 13·14·15합집, 1989.

87) 김두진, <신라 진평왕대 초기의 정치개혁> 《진단학보》 69, 1990 ; 장장식, <도화녀 비형랑 설화의 성립과 의미> 《황산이흥종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97 ; 김기홍, <도화녀·비형랑 설화의 역사적 진실> 《한국사론》 41·42합집, 서울대학교, 1999.

6) 제27대 선덕여왕의 왕위계승

제27대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삼국사기》 권5, 선덕왕 즉위조에는 善德王은 “이름이 德曼이고 진평왕의 맏딸이며, 어머니는 김씨 摩耶夫人이다. … 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나라 사람들이 덕만을 왕으로 세우고(王薨無子 國人立德曼) 聖祖皇姑의 칭호를 올렸다.”고 하였다. 또 《삼국유사》 왕력의 제27 선덕여왕조에는 선덕여왕은 “이름이 德曼이고 아버지는 진평왕이며 어머니는 마야부인 김씨이다. 성골의 남자가 없으므로 여왕이 올랐다(聖骨男盡故女王立).”고 하였다.

이들 기록에서 보듯이, 선덕왕은 진평왕의 딸이다. 그러므로 선덕왕의 즉위는 혈연상으로는 정상적인 왕위계승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특이한 것은 앞선 시기의 왕위가 男系로 계승되었던 것과는 달리 딸, 즉 女系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신라 최초의 여성 국왕이 된 선덕여왕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 관심 중에서도 우선은 어떻게 즉위하였는가? 즉 왕위계승에 관한 것이다.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한 이해는 크게 보면 중고기의 신라 사회가 모계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정치사회적 문제가 없었다는 견해와 당시 신라는 부계제 사회라서 여왕의 즉위는 반대가 있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선덕여왕이 즉위한 이유는 《삼국사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진평왕이 죽고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덕여왕의 즉위는 그녀의 아버지인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는 것(王薨無子)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왕위를 계승할 자격을 갖춘 아들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 자격이란 것은 《삼국유사》에서 표현되었듯이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인 골품제에서 聖骨의 자격을 가진 아들을 이야기한다. 결국 이것은 왕위를 물려줄 성골 신분의 아

들은 없고(聖骨男盡) 딸은 있다는 의미이다. 좁게 해석하면 진평왕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성골의 아들이 없어 부득이 딸 德曼이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말이 된다.⁸⁸⁾ 뒤집어 말하면 진평왕에게 성골의 아들이 없어 성골 신분의 딸 덕만이 왕위를 계승한 것이라 보겠다. 그러므로 선덕왕의 즉위는 합법적이며, 진평왕의 장녀로서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자상속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주장도 있다.⁸⁹⁾

하지만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은 骨品이라는 신분제에서 이른바 ‘聖骨男盡’이 이유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표면적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과 같다.

선덕여왕의 아버지 진평왕은 앞서 진흥왕이 추구한 대내외 정책을 계승하여 추진함으로써 중고기 신라 왕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귀족 세력을 누르고자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관제 정비를 단행하였고, 왕권 전제화를 목표로 釋迦佛信仰을 차용함과 동시에 儒敎政治理念을 강화하였다.⁹⁰⁾ 진흥왕이 轉輪聖王을 추구한 것을 이어 그 구성원에 한해 정치적 종교적으로 王即佛 사상과 眞宗說을 받아들여 왕가를 釋迦族에 대입시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였다. 특히 진평왕은 자신의 이름을 白淨이라 하고 어머니를 摩耶夫人, 아우 白飯·國飯이라 하여 釋迦牟尼의 가족의 이름을 본떠 불렀듯이, 銅輪의 직계에 한정해 이른바 聖骨 관념을 내세워 王家 위상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88) ‘聖骨男盡’을 흔히 성골 자격을 가진 남자의 절멸로 이해하여 진평왕의 아우, 즉 선덕여왕의 숙부인 진정갈문왕과 진안갈문왕도 성골신분이지만 진평왕보다 먼저 죽고 없었다는 견해, 이와 달리 성골 남성이 멸절된 것이 아니라 성골신분으로 왕위계승의 자격을 갖춘 진평왕 직계의 남자가 끊겼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이정숙, 앞의 책, 2012, 197쪽).

89) 이종욱, 앞의 책, 1980, 155쪽.

90) 이정숙, 앞의 책, 2012, 15~16쪽. 97쪽.

이른바 ‘성골남진’이란 표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라 중고기 신라왕실의 혈족 집단내의 여러 가계가 분지화되며, 진흥왕의 직계인 동륜태자의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小家系(진평왕계)가 배타적으로 여타 왕실집단이 소유한 진골보다 더 상위의 신분계급인 성골을 주장한 것이다.⁹¹⁾ 신라 역사상 여성이 왕위에 오른 예가 없으므로 여왕 즉위의 정당성이 요구되었다.⁹²⁾ 그러므로 선덕여왕이 왕위계승자로 결정된 것은 신라 중고기 왕들과 아버지 진평왕의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물이다.⁹³⁾ 이에 더해 王者意識의 고양으로 관념화된 성골의식을 명분으로 선덕여왕이 즉위하였다.⁹⁴⁾

다른 한편에서는 ‘國人立’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기록에 근거하여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은 계위가 아니라 사실은 진평왕의 장녀로 추대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⁹⁵⁾ 선덕왕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선덕왕의 즉위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의 일정한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라고도 한다.⁹⁶⁾

이와 관련하여 진평왕 말년에 있었던 柒宿의 모반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⁷⁾ 진평왕이 죽기 몇 달 전에 柒宿과 石品은 여자인 德

91) 이기동, <신라 내물왕계의 혈연의식>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86~89쪽.

92) 성골을 진평왕이 직계 장녀를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 창출된 작위적인 신분관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병곤, <신라 중고기 말의 정치현황에 대한 비갈등론적 이해> 《한국고대사의 현단계》, 주류성, 2009. 483쪽).

93) 정용숙, <신라의 여왕들> 《한국사시민강좌》 15, 일조각, 1994. 45쪽.

94) 주보돈, <비담의 란과 선덕왕대 정치운영>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1994, 216~217쪽.

95) 신형식, 앞의 책, 2011, 212쪽.

96) 신형식, 앞의 책, 1984 ; 김영하, 앞의 논문, 1988 ; 주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 내정> 《한국학논집》 20, 1993.

97) 정용숙, <신라 선덕왕대의 정국동향과 비담의 난> 《이기백선생고회기념

만이 왕위계승자로 결정된 것을⁹⁸⁾ 반대하여 난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사건은 도리어 난을 진압한 선덕여왕을 지지하는 세력 - 龍春과 협조자들 - 國人에게 그녀의 왕위계승을 확고히 해주는 구실을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⁹⁹⁾

그러므로 선덕여왕의 즉위는 신라 왕위계승상에서 종전에 지켜온 부자계승원칙을 준수하고자 재위 중인 왕의 자식이라야만 하는 필수적 기본조건인 혈연요인에다가, 이제부터는 반드시 성골이라야 하는 골품제 규정을 새롭게 적용시킨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자라는 한계를 정치적 지지자들에 의해 國人の 추대 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통해 합리화하였다.

7) 제28대 진덕여왕의 왕위계승

제28대 진덕여왕의 즉위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있었다.

《삼국사기》 권5, 진덕여왕 즉위조에 보면 眞德王은 “이름이 勝曼이고 진평왕의 친동생 國飯葛文王의 딸이다. 어머니는 朴氏 月明夫人이다. 승만은 생김새가 풍만하고 아름다웠으며, 키가 일곱 자였고 손을 내려뜨리면 무릎 아래까지 닿았다.”고 하였다.

진덕여왕이 왜, 어떻게 즉위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

넘 한국사학논총》 상, 1994.

98) 진평왕 43년에 장녀 덕만(선덕)을 왕위계승권자로 정했다는 견해가 있다 (이정숙, <진평왕 말기의 정국과 선덕왕의 즉위> 《백산학보》 52, 1999, 218쪽).

99) 이에 대하여 선덕여왕의 즉위에는 사상적인 면도 작용하였으며(강영경, <신라 선덕왕의 지기삼사에 대한 일고찰> 《원우논총》 8, 1990 ; 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 76, 1992), 또한 일본의 여왕 즉위 사례를 이용하였을 것(주보돈, 앞의 논문, 1994 ; 조범환,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2000)이란 추측도 있다.

다. 하지만 진덕여왕 역시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즉위 배경과 과정을 밝혀 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더구나 그녀는 전왕인 선덕여왕의 자식도 아니라 직계계승도 아니었다.

먼저 앞의 [그림 1] ‘신라 중고기 왕실계보도’에서 보듯이,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의 아우 國眞安葛文王의 딸이다. 국진 안갈문왕은 다른 본의 《삼국유사》 왕력에는 國飯 또는 國芬, 國其安葛文王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삼국사기》를 보면 579년(진평왕 1) 8월 眞安葛文王으로 책봉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부계로 從姉妹이다.¹⁰⁰⁾ 결국 진덕여왕의 왕위계승은 정상적인 부자계승이 아니라 종형제간 계승이며, 더구나 한국 역사상 유일하게 여성 사이에 이루어진 왕위계승이라 특이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에는 진덕여왕의 어머니는 阿尼夫人 박씨인데, 그녀의 아버지는 滿天葛文王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신라가 김씨 왕통에 의한 부자계승이 확립된 중고기에도 박씨가 갈문왕이 된 점이다. 이는 중고기 박씨세력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공한다.¹⁰¹⁾

이런 특이한 왕위계승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전왕 선덕여왕이 직접 진덕여왕을 왕위계승자로 결정했을까? 아니면 선덕여왕이 죽은 뒤에 추대자들에 의해 결정된 것일까? 다시 말하면

100) 문경현은 진덕여왕의 왕위계승은 어머니 阿尼夫人의 아버지가 福勝葛文王이라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즉 진덕여왕의 어머니 阿尼夫人의 아버지를 《삼국유사》 왕력에는 결락되었으나 福勝葛文王으로 보았다(문경현, 앞의 논문, 1999, 288쪽). 만약 이 주장을 따른다면 복승 갈문왕은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의 滿天葛文王과 동일인이 되고, 滿天葛文王의 영향으로 진덕여왕이 즉위한 것이 된다. 하지만 필자는 현재로서는 잘 납득할 수가 없다.

101) 여기에는 진평왕가가 성골의식의 표방하는 과정에 좀더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하일식, 앞의 논문, 2013, 128쪽).

선덕여왕이 생전에 진덕여왕을 왕위계승자로 선택해 놓았느냐 아니냐에 논쟁이 되고 있다.

흔히들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의 從弟로서 추대되어 즉위한¹⁰²⁾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선덕여왕은 재위 중에 후계자를 정해두지 않은 모양이다.¹⁰³⁾ 하지만 선덕여왕의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왕위에 대해 욕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당시 上大等の 지위에 있던 毗曇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金春秋였을 것이다. 특 김춘추는 진지왕의 후손으로 부계로는 선덕여왕의 再從弟이지만 모계로는 이모와 조카 사이, 결국 진평왕의 외손자로서 왕위에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덕여왕은 말년에 병이 들어 위독해짐에 왕위를 동륜태자의 직계로 고수하고자 왕은 성골이 신분이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여성이란 특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진덕여왕으로 발표했을 것이다. 그러자 비담은 이것에 반발을 하면서, 이른바 ‘女主不能善理’를 내세워 진덕여왕을 왕위계승자로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였다.¹⁰⁴⁾ 반면에 선덕여왕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지지세력이었던 김춘추 등은 이를 지지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대립은 결국 비담의 정변으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김춘추와 김유신은 무력으로 비담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김춘추 자신의 속내를 뒤로 한 채 진덕여왕의 왕위계승은 진평왕의 후손으로 성골 신분이 김씨 왕실을 잇는다는 상징성을 내세워 임시수단으로 그녀를 추대한 것이라 하겠다.

102) 신형식, 앞의 책, 2011, 212쪽.

103) 이와 달리 선덕여왕 후기에 진덕여왕을 왕위계승자로 정해두었고, 이에 반발하여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있다(이종욱, 앞의 책, 1980, 20쪽 ; 후보돈, 앞의 논문, 1994, 214쪽 ; 김덕원, 앞의 논문, 1999, 269쪽).

104) 후보돈, 앞의 논문, 1994, 214~215쪽.

이처럼 진덕여왕의 즉위는 그 자체에 이미 복합된 의미가 간직되어 있었다. 진덕여왕의 경우는 전왕 선덕여왕의 즉위와는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진덕여왕은 신라 중고기를 마감하고 태종무열왕이 즉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닦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왕위에 있음으로써 과도적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¹⁰⁵⁾

결국 진덕여왕의 왕위계승은 신라 왕위계승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男系로 이어지는 부자계승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선덕여왕과 서로 從弟라는 가장 가까운 부계친으로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골의 기본조건을 가졌기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김춘추라는 강력한 정치 집단으로부터 추대를 받아 즉위한 것이다.

2. 중고기 왕위계승의 성격

앞에서 파른본 《삼국유사》의 왕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신라 중고기 왕위계승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신라 중고기 왕위계승과 가계

대	왕명	전왕과 친족관계	즉위 [실제]	부계	모계 (성씨, 부)	비계 (성씨, 부)
22	지증왕	재종계	계위 [찬탈]	기보갈문왕	오생부인 (김, 눌지왕)	영제부인(박, 등흔)
23	법흥왕	장자	계위	지증왕	영제부인(박, 등흔)	파도부인
24	진흥왕	조카, 외손자	계위	입종갈문왕	지소부인 (김, 진흥왕)	식도부인 (박, 영실)
25	진지왕	차자	[찬탈]	진흥왕	식도부인(박, 영실)	지도부인(박, 기오)
26	진평왕	조카	[추대]	동륜태자	만호부인 (김, 입종갈문왕)	마야부인 (김, 복승갈문왕)
						승만부인(손)

105) 정용숙, <신라의 여왕들> 《한국사시민강좌》 15, 일조각, 1994. 45쪽.

27	선덕여왕	장녀	계위 [추대]	진평왕	마야부인 (김,복승갈문왕)	음갈문왕 (김)
28	진덕여왕	종제	계위 [추대]	국진안갈문왕	아니부인 (박,만천갈문왕)	
29	무열왕	재종제	추대	용춘,문흥갈문왕	천명부인,문진태후 (김,진평왕)	훈제부인,문명왕후 (김,서현)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삼국유사》에서 中古로 구분한 시기에는 제23대 법흥왕부터 제28대 진덕여왕까지 6명 왕이 재위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중고기 왕통은 흔히들 ‘智證王系’라고 하듯이 앞서 재위한 제22대 지증왕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지증왕을 포함한 중고기의 왕은 모두 7명인데, 여기에는 남성 왕 5명은 물론, 여성 왕이 2명이나 있다. 이것은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특이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전왕과의 친족관계를 살펴보면 부계로서 부자관계는 3명이고, 나머지는 비부자관계가 4명인데, 그 중에는 조카 2명, 종제 1명, 재종제 1명이다.

또 계승방법에서 보면 문헌기록에 표현된 것은 계위 5차례이고, 나머지 2차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필자가 앞에서 각 왕 별로 왕위계승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은 평화적인 계위는 2차례에 불과하고, 찬탈이 2차례, 추대의 형식을 거친 경우가 3차례라고 하겠다.¹⁰⁶⁾

한편 이들의 가계를 살펴보면 부계는 모두가 지증왕의 후손이며,

106) 신형식은 지증왕은 소지왕의 종제로서 ‘계위’, 법흥왕은 지증왕의 장남으로 ‘계위’, 진흥왕은 법흥왕의 질로서 ‘계위’, 진지왕은 진흥왕의 차남으로 ‘찬탈’하였다가 ‘폐위’되었으며, 진평왕은 진지왕의 질로서 ‘추대’, 선덕왕은 진평왕의 장녀로 ‘추대’, 진덕왕은 선덕왕의 종제로서 ‘추대’, 무열왕은 진덕왕의 종제로서 ‘추대’되었다고 보았다(신형식, 앞의 책, 2011, 212쪽).

비록 연구자들에 따라 銅輪系니 舍輪系니 구분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이들도 좀 작은 가계로 구분하면 제24대 진흥왕의 후손들이라 ‘眞興王系’라고 하겠다. 그리고 모계를 보면 김씨와 박씨가 거의 반반에 해당한다. 또 배우자를 보면 5명 남자 왕은 6명 왕비(진평왕 2명) 중에 박씨 3명, 손씨 1명, 표기가 없는 2명이고, 2명 여왕은 배우자가 김씨 1명, 배우자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1명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파악을 전제하면서 중고기 왕위계승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우선 지증왕은 소지왕의 재종제로서 ‘찬탈’, 법흥왕은 지증왕의 장남으로 ‘계위’, 진흥왕은 법흥왕의 조카로서 ‘계위’, 진지왕은 진흥왕의 차남으로 ‘찬탈’하였으며, 진평왕은 진지왕의 조카로서 진평왕이 폐위되자 ‘추대’되었으며, 선덕왕은 진평왕의 장녀로 계위이지만 ‘추대’의 형식을 거쳤고, 진덕왕은 선덕왕의 종제로서 역시 계위이지만 실체는 ‘추대’이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왕의 장남(법흥왕) 또는 장녀(선덕여왕)인 경우에는 계위를 하였다. 그렇지 않은 혈연상 비정상적인 계승의 경우에는 再從弟(지증왕)와 次子(진지왕)로서 비평화적 계승인 찬탈을 하였거나, 평화적인 계승이었다고 해도 추대의 절차를 거쳐서(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즉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추대의 절차를 거쳐 즉위한 경우는 비록 본인이 직접 무력행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추대한 세력들이 정치군사적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로 즉위한 것이라 하겠다(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더구나 이 추대의 경우에는 그 당시 가장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던 귀족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화백회의 결정을 거침으로서 왕위계승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 반면에 ‘荒淫政亂’을 이유로 폐위된 진지왕의 경우 역시 화백회의의 결정을 거쳤다.¹⁰⁷⁾

107) 소지왕의 폐위와 지증왕의 즉위도 이러한 회의체의 결정 절차를 밟았을

한편 가족관계를 보면 중고기 왕들은 부계로는 실제 재위한 왕의 자녀이거나 왕위계승 예정자인 태자의 아들, 생전에 갈문왕의 지위를 소유하고 있었던 왕족 내지는 그의 자녀였다. 모계로는 어머니가 실제 즉위한 왕의 딸(오생부인, 지소부인) 또는 갈문왕의 딸(만호부인, 마야부인, 아니부인)이거나, 박씨세력 출신(영제부인, 식도부인)이었다. 이에서 보건대 신라 중고기에 재위한 왕들은 즉위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혈연적으로 중고기 왕실의 범주에 속하는 김씨 부계와 김씨 모계의 근친혼, 소수의 박씨 모계와의 혼인으로 출생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새로 즉위한 왕들은 가급적이면 김씨만의 근친혼이 아니라 박씨와 혼인하였다.

특히 중고기는 진평왕을 제외한 왕들의 부인은 모두 박씨였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김씨왕실과 통혼군을 이루는 박씨집단을 설명하려는 노력도 있었다.¹⁰⁸⁾ 더구나 김철준은 중고기는 김씨왕실과 통혼군을 이루는 박씨집단이 존재하며, 김씨를 아버지로 박씨를 어머니로 하는 왕들은 이름에 ‘眞’자를 사용한 ‘佛敎王名時代’로 보았다.¹⁰⁹⁾ 심우준은 중고기 김씨왕실은 범흥왕을 장자계, 입중계를 차자계, 진지왕을 3자계라 할 수 있는데, 장자계와 3자계에는 박씨부인들이, 차자계에는 김씨부인들이 배우자가 되었다고 까지 하였다.¹¹⁰⁾ 또 신종원은 중고기 왕비족 박씨는 모량부 출신으로서 탁부 소속 왕족 김씨와 통혼권을 형성한 것으로 이해하였다.¹¹¹⁾

것으로 추측된다.

108) 末松保和, <新羅三代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170쪽.

109) 김철준,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 하> 《역사학보》 2, 1952 ; <신라 귀족세력의 기반> 《인문과학》 7, 1962, 98쪽.

110) 심우준, 앞의 논문, 1965, 320쪽.

111) 신종원, <단석산 신선사조상기에 보이는 미륵신앙집단에 대하여> 《역사학보》 143, 1994, 15쪽.

어쨌든 이것은 신라 중고기에 이르러 내부로는 점진적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변 국가들과 대결하여 영토를 확장하면서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혼인을 통하여 더 많은 지지세력의 확보하고 국가 통치조직의 확장에 따른 필요한 관리 등 인재등용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였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흥미롭게도 중고기에는 두 명의 여왕이 연속적으로 즉위하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 이것은 물론 이미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이들이 진평왕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실체는 특정 정치세력들이 추대한 결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전의 왕위계승과는 달리 성골이라는 신분문제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라의 골품 관련 기록이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두 왕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짐작컨대 중고기에는 왕위의 남계계승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성골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골 여자로 왕위를 계승케 하는 것이 정치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쉬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 왕위계승자의 골품 문제는 신라에서 여왕이 즉위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¹¹²⁾ 이처럼 중고기에는 성골 신분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당시의 정치적 역학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신라 중고기에는 왕위의 부자계승이 확립되어 장자계승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지증왕계의 남계계승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왕위계승에서 혈연요소인 친족계승원리보다는 때로는 정치적 요인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게다가 진평왕 이후에는 성골이라는 신분제 요건이 가장 중시되어, 그 결과 연이어 두 명의 여왕이 즉위하는 특수한 현상을 낳았다.

112) 정용숙, 앞의 논문, 1994, 42쪽.

IV. 맺음말

이 글은 2013년 1월 16일 공개된 파른본 《삼국유사》의 왕력을 검토하여 신라 중고기 왕실계보를 재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시기 왕위계승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다만, 《삼국유사》의 시기구분에서 중고는 제23대 법흥왕~제28대 진덕여왕까지이지만, 사실은 제22대 지증왕의 후손들에 의하여 왕위가 계승되었기에 혈통상 ‘智證王系’이므로, 여기서는 지증왕을 포함하여 다루었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파른본 《삼국유사》의 하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파른본 왕력의 중고기 내용을 임신본, 석남본과 비교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지증마립간의 妃 이름이 迎帝夫人, 법흥왕의 비 이름이 巴刀夫人, 진흥왕의 어머니는 只召夫人이고, 진지왕의 어머니이며 진흥왕의 비인 息途夫人은 牟梁里 박씨이고 그녀의 아버지는 이름이 莢失이며 관등이 角干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진덕여왕의 아버지는 이름이 國眞安葛文王이며, 여왕의 어머니인 阿尼夫人의 아버지는 奴角干인데 滿天葛文王으로 추봉되었다. 또 태종무열왕의 아버지는 이름과 관등이 龍春 角干이고, 추봉 명칭이 文興葛文王이고, 어머니 天明夫人은 文眞太后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고기의 왕위계승과정을 각 왕별로 살펴본 결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부계로 모두 지증왕의 후손들이라 ‘지증왕계’이며, 좀더 작은 가계로 구분하면 진흥왕의 후손들이라 ‘眞興王系’라고 하겠다. 모계는 김씨와 박씨가 거의 반반에 해당한다. 전왕의 장남 또는 장녀인 경우에는 계위를 하였지만, 혈연적으로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재종제와 차자로서 비평화적 계승인 찬탈을 하였거나, 평화적인

계승이었다고 해도 추대의 절차를 거쳐서 즉위하였다.

한편 중고기 왕들은 즉위방법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혈연적으로 왕실의 김씨 부계와 김씨 모계의 근친혼, 소수 박씨 모계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인물들이었다. 새로 즉위한 왕들은 김씨만의 근친혼이 아니라 박씨와 혼인하여,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인재등용의 범위를 넓혀 왕권강화를 추구하였다.

결국 신라 중고기의 왕위계승은 지증왕계의 장자계승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때로는 친족계승원리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진평왕 이후에는 성골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두 명 여왕이 연이어 즉위하는 여계계승이라는 특수 현상을 있었다.

[사진]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
제22 지증왕~제28 진덕여왕 부분 (김태식, 연합뉴스 제공)



【참고문헌】

- 강영경, <신라 선덕왕의 지기삼사에 대한 일고찰> 《원우논총》 8, 1990.
- 강영경, <신라 진평왕대 무불관계에 대한 일고찰> 《숙대사론》, 13·14·15합집, 1989.
- 강인구, <신라왕릉의 재검토>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강인구 외, 《역주삼국유사》, 이회문화사, 2002~2003.
-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晚松文庫本 附 石南本·鶴山本 三國遺事》, 昨晨社, 1983.
- 今西龍,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 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 이마니시 류, 《신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08.
- 김기홍, <도화녀·비형량 설화의 역사적 진실> 《한국사론》 41·42합집, 서울대학교, 1999.
- 김기홍, 《천년의 왕국》, 창작과 비평사, 2000.
- 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대역화랑세기》, 소나무, 2005.
- 김덕원, 《신라 중고 정치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7.
- 김두진, <신라 진평왕대 초기의 정치개혁> 《진단학보》 69, 1990.
- 김두진, <삼국유사의 체제와 내용> 《한국학론총》 23, 2001.
- 김병곤, <진평왕의 즉위와 지증왕계 인물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6, 2009.
- 김병곤, <신라 중고기 지배 집단의 정치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사학연구》 76, 2004.
- 김부식 지음, 이병도 옮김,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 김상현,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 《동양학》 15, 1985.
- 김상현, <삼국유사 현존 고판본과 파본본의 위상> 《동방학지》 162, 2013.
-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 20, 1978.
- 김상현, <삼국유사의 간행과 유통> 《한국사연구》 38, 1982.
- 김상현,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김영하, <신라 중고기 정치과정 시론> 《태동고전연구》 4, 1988.
- 김용선, <울주 천전리서석 명문의 연구> 《역사학보》 81, 1979.
- 김창겸, <신라 진흥왕의 즉위과정> 《한국상고사학보》 23, 1996.
- 김창겸, <신라시대 태자제도의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13, 1993.
- 김창겸,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 김철준, <신라 귀족세력의 기반> 《인문과학》 7, 1962.
- 김철준,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 하> 《역사학보》 2, 1952.
- 김철준,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 김태식, <삼국유사에서의 왕력의 위치와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의 가치> 《신라사학보》 28, 2013.
- 김희만, <영일 냉수리비와 신라의 관등제> 《경주사학》 9, 1990.
- 김희만, <신라 지증·법흥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경북사학》 23, 2000.
- 남권희, <파른본 삼국유사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162, 2013.
- 남도영, <진흥왕의 정치사상과 치적> 《통일기의 신라사회 연구》, 경상북도·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1987.
- 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 76, 1992.
- 도현철, <조선 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 간행> 《동방학지》 162, 2013.
- 류부현, <삼국유사 ‘왕력’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 《서지학연구》 8, 1992.
- 류부현, 《삼국유사의 교감학적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 류부현, <삼국유사 왕력 교감고> 《사학연구》 43·44, 1992.
- 리상호 역, 《삼국유사》, 북한 과학원출판사, 1960.
- 문경현, <시왕설과 선덕여왕> 《백산학보》 52, 1999.
- 문경현, <영일 냉수리 신라비에 보이는 부의 성격과 정치운영문제> 《영일 냉수리 신라비(가칭)의 종합적 검토》, 1989.
- 문경현, <울주 신라 서석명기의 신검토> 《경북사학》 10, 1987.
- 민족문화, 《三國遺事》, 1984(순암수택본 영인)
- 민족문화추진회, 《三國遺事》, 1973(서울대도서관 소장본 영인)
- 박남수, <통일주도세력의 형성과 정치개혁> 《통일기의 신라사회 연구》, 경상북도·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1987.
- 박남수,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2013.
- 박대재, <삼국유사 판본의 몇 가지 문제> 《교감 삼국유사》, 고려대출판부,

2009.

- 박미선, <일연의 신라사 시기구분 인식> 《역사와 현실》 70, 2009.
- 박성희, <신라 진흥왕 즉위 전후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 박용국, <신라 진지왕의 폐위와 진평왕 초기의 정치적 성격> 《대구사학》 85, 2006.
-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002.
- 박해현, <신라 진평왕대 정치세력의 추이> 《전남사학》 2, 1988.
-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證》 上, 塙書房, 1975.
- 선석열, <마립간기의 왕권과 갈문왕> 《신라문화》 22, 2003.
- 신종원, <단석산 신전사조상기에 보이는 미륵신앙집단에 대하여> 《역사학보》 143, 1994.
-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1)》, 일지사, 2004.
- 신형식, 《삼국사기의 종합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 심우준, <신라왕실의 혼인법칙> 《조명기박사화갑기념불교사학논총》, 1965.
- 유태일 외, 《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 이강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왕대력 비교 연구> 《한국사학보》 21, 2005.
- 이강래, 《삼국사기 인식론》, 일지사, 2011.
-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7.
- 이근직,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 성격과 시기> 《한국사연구》 101, 1998.
- 이기동, <신라 내물왕계의 혈연의식> 《역사학보》 53·54합집, 1972.
- 이기동, <신라화랑도 연구의 현단계>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1994.
- 이기동,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 이기동, <삼국유사에 의한 신라사연구와 서술>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이기백, <삼국유사 왕력편의 검토> 《역사학보》 107, 1985.
-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 이명식, <신라 중대왕권의 전제화 과정> 《대구사학》 38, 1989.
- 이병도, 《국역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 이부오,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의 판본상 위치와 이표기의 서술맥락>, 201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과제(AKSR2013-C13) 결과보고서.
- 이정숙, <진평왕 말기의 정국과 선덕왕의 즉위> 《백산학보》 52, 1999.
- 이정숙, <진평왕의 즉위를 전후한 정국동향> 《부산사학》 27, 1994.
- 이정숙, <진흥왕의 즉위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부산여대사학》 12, 1994.
- 이종욱, <신라시대의 혈연집단과 상속> 《역사학보》 121, 1989.
- 이종욱, 《신라상대왕위계승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0.
- 이희관, <신라상대 지증왕계의 왕위계승과 박씨왕비족> 《동아연구》 20, 1990.
- 장장식, <도화녀 비형량 설화의 성립과 의미> 《황산이흥종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1997.
- 장창은, <신라 지증왕의 집권과 대고구려 방위체계의 확립> 《한국고대사연구》 45, 2007.
- 정구복, <영일냉수리비의 금석학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3, 1990.
- 정용숙, <신라 선덕왕대의 정국동향과 비담의 난>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1994.
- 정용숙, <신라의 여왕들> 《한국사시민강좌》 15, 일조각, 1994.
- 정효운, <신라 중고시대의 왕권과 개원에 관한 연구> 《고고역사학지》 2, 1986.
- 조범환,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2000.
- 주보돈, <비담의 란과 선덕왕대 정치운영>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1994.
- 채상식,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의 자료적 가치> 《지역과 역사》 27, 2010.
- 채상식, 《고려후기 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 村上四男, <三國遺事解詁(その一)> 《朝鮮學報》 99·100, 1981.
- 최남선, <삼국유사 해제> 《계명》 18, 계명구락부, 1927.
- 최숙경, 《한국여성사》 I, 이화여대출판부, 1978.
- 최재석, <신라왕실의 왕위계승> 《역사학보》 98, 1983.
- 하일식, <삼국유사 파른본과 기존 판본의 글자비교> 《동방학지》 162, 2013.
- 하정룡, <삼국유사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2.
- 하정룡, 《교감 역주 삼국유사》, 시공사, 2003.
- 하정룡, 《삼국유사 사료비판》, 민족사, 2005.
- 하정룡·이근직, 《삼국유사 교감연구》, 신서원, 1997.

ABSTRACT

A Study on Royal Genealogy and Succession to the Throne in Silla during 6-7th Centuries.

Kim, Chang-kyum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royal genealogy by examining newly appeared ‘Wangryeok of Pareunbon *Samgukyusa*’(과른본 《三國遺事》 王曆), it also looks into the characteristic of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The Wangryeok reveals several new records on the father of Queen Jindoek(眞德女王) is Gukjinan galmunwang(國眞安葛文王), her mother Madam Ani(阿尼夫人) is a daughter of Mancheon galmunwang(滿天葛文王), and so on.

All the kings descended from paternal lines of ‘King Jijeung lineage(智證王系)’, smaller ‘King Jingeung lineage(眞興王系)’. On the maternal line’s side they are almost evenly divided into descendants of Park clan(朴氏) or Kim clan(金氏). In the case of the eldest son or daughter the hierarchy was acknowledged, but in other cases the throne could be usurped or the right to ascend it could have been won in the process of selection.

New kings were married not only to Kim clan but also to Park clan, in order to procure the support, extent the selection of individuals fit for higher positions and strengthen royal authority.

Therefore, the succession right to the throne was decided by the rule of the

eldest son in ‘King Jijeung lineage’ in Silla during 6-7th Centuries. However, in some cases political factors were more applicable than the right to succession based on the blood ties. What is more, after King Jinpyeon(眞平王), Seonggol(聖骨) became a very important requirement. Consequently, Silla had a unique phenomenon of the two queens consecutively ascending the throne.

Key words : Wangryeok, Pareunbon, *Samgukyusa*, Royal Genealogy, Suceesion to the Throne, King Jijeung lineage, Silla, 6-7th Centuries

논문 투고일 : 2014. 3. 17. 심사 완료일 : 2014. 4. 8. 게재 확정일 : 2014. 4. 15.